

# 農民이 보는 오늘의 서울

— 살고 싶지 않은곳 …… 63%

196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른바 근대화 과정에 들어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 중의 하나는 농촌 주민의 대대적인 도시이주 현상이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농촌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64%를 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농촌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거의 60년대 초의 절반으로 떨어져서 현재 농촌인구는 33%를 조금 넘는 형편이며, 이 중에서 농사에 실제로 종사하는 농가 인구는 전체인구의 27%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농민의 대량 도시이주 현상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현상이지만, 60년대에 도시로 빠져나온 농민들 중에는 산업화와 관계 없이 그저 농촌에서 살기 힘들어 농촌을 떠난 사람들도 솔하게 많았다. 어쨌든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도시인구, 특히 대도시의 인구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팽창시켜 왔으며, 이 중에서도 인구팽창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에 부딪친 도시는 말할 것 없이 서울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서울 인구는 1천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꼴이 된다.

서울 인구의 과대팽창은 주택난이나 교통난의 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실업문제나 범죄문제 등의 슬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서울의 공기오염문제는 다시 거론할 필요조차 없이 심각하거나, 좁은 공간에 인간이 밀집해 살다 보면 답답한 느낌도 들고 짜증도 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울에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것은 서울에 사는 것이 다른 도시나 농촌에 사는 것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주요 정치·행정·문화·경제시설은 거의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에서 살다 보면 많은 기회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물론 서울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중추적 역할을 해온 지역임은 비단 최근에 와서 생긴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말이 나면 제주도도 보내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전해져 내려왔다. 이처럼 서울은 다른 지역 주민, 특히 농촌 주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여기에 바로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는 원인이 있었다. 그렇다면 80년대에 들어선 후 오늘날 농민들은 서울을 어떻게 보고 있겠는가? 먼저 우리는 농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다.

응답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계
비율	66%	31%	3%	100%

예상했던대로 아직도 우리 농민의 다수는 자식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서울로 보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3분의 1도 안된다. 이러한 견해는 특히 농촌 여성에게서 더 강렬하게 나타나는데, 아마 이것은 자식의 양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농촌생활이 아직도 여성에게는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농민들이 자식을 서울에 보내고 싶어하는 만큼 자신들도 서울에 이주해서 살고 싶어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표 2〉의 자료에서 나타난다.

응답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계
비율	29%	63%	8%	100%

그렇다면 오늘날 농촌 주민의 대다수가 서울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물론 이 경

우 농촌생활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보다는 서울에 대한 농민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데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사실 아래에서 제시되는 자료들은 농민의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어, 서울이 동경의 대상이 못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컨대 「서울에는 범죄가 많다」에 대해 농민의 대부분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계
84%	7%	9%	100%

그런가 하면 서울은 인심이 각박해서 살기에 외로운 곳일 뿐만 아니라, 환경이 답답하고 쾌적하지 못한 곳이라는 견해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농민이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계
70%	24%	6%	100%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계
70%	20%	10%	100%

한편 우리 농민은 서울이 답답한 곳이고 인심이 각박한 곳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면서도, 서울 사람이 이기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준다. 즉, 「서울 사람들은 대부분 이기적이나」라는 질문에 대해 과반수 조금 넘는 수(54%)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나(23%)」는가 「모르겠다(23%)」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농촌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라는 반응에 대해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의 모습이 이처럼 부정적인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지나친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계
54%	23%	23%	100%

그런가 하면 우리 농민의 상당수는 단순히 서울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서울 사람들은 농촌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서울 시민은 농민들에 비해 정책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계
74%	18%	8%	100%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계
57%	29%	14%	100%

한편 우리는 농민의 상당수가 단순히 서울 사람들은 농촌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서울의 발전은 바로 농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믿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계
52%	30%	18%	100%

이같이 우리 농민이 서울에 대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은 다음의 반응인 「서울은 농촌에 비해 다른 나라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과 관련해서,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국민 총화를 위해 시급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계
57%	35%	8%	100%